

# 생애 첫 투표 고교생 유권자들 “뭘 보고 찍나요?”

### 청소년 공약 찾기 어렵고 처음 본 비례정당 줄줄이 광주·전남 학생 유권자 1만명 깜깜이 선거 우려에 답답 선관위 부실 교육 비난도

21대 총선(4월 15일)을 꼭 일주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고교생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올해 첫 선거권을 가졌음에도, '코로나19'에 묻혀 인플루엔자 공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기 힘들어서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도 홍보 책자를 배포하거나 온라인 선거교육 동영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각 학교와

연결시켜놓은 것 외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선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깜깜이 선거'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만 18세 미만 유권자는 총 2만 4265명(광주 1만 8342명, 전남 5923명)으로, 이 중 고등학생은 1만 415명(광주 5345명, 전남 5070명)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투표참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올해 첫 선거를 앞둔 '교육 유권자'들은 처음 갖는 본인의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후보자 공약도, 선거 교육도 부실 투성이=교육 유권자들의 인생 첫 선거에 대

한 기대감 만큼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코로나19에 밀려 개학이 연기되면서 변변한 선거 교육조차 받지 못하다보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비례정당 투표용지에 정당 35개가 적힌 이유 등을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은 커녕,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선관위의 소극적 행태에 비판도 나온다.

2002년 3월 9일 생으로 올해 첫 선거권을 갖게된 수피야고 문서정(18)양은 "첫 선거인데 코로나로 인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다"면서 "후보자들 이름만 보고 찍어야 하는지 뭘 보고 찍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첫 선거권을 갖는 정유진(18)양도 "아직 집에 공보물이 도착하지 않아 포스터나 인터넷 상 광고들만 정보를 얻고 있다"면서 "내 첫 투표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고 싶지만, 자칫 내표가 사표로 버려질까봐 그냥 여론조사 결과를 따라야 할지 고민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진도고등학교 이성현(18)군은 "친구들 중에는 생일이 4월 15일 이전임에도 본인이 투표권을 갖는지 모르는 친구들조차 있다"면서 "비례대표 정당이 어디 어디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정보와 방법을 몰라 비밀투표임에도 학교 선생님이나 가족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릴 위한 청소년 공약은 찾을 수 없고=광주·전남 청소년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도 찾기 힘들다.

투표권이 많은 세대 공약과 지역 발전 공약만 내놓고 정작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정책은 전혀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목소리다.

문양은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보거나 시사 프로그램 등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없다"면서 "후보들 대부분이 투표권이 더 많은 어른들 위주의 공약만 내놓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양이 사는 광주시 서구울의 경우 5명의 후보자 중 청소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이군도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준다는 것을 빼면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발표한 청소년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디지털 성범죄' 알몸 영상 유포 협박

### 돈 받으려 온 20대 남성 검거 서부경찰 '몸캠 피싱범' 추적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해 확보한 동영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 유포 사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내걸고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단'을 가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알몸 영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금품을 뜯어내는 '몸캠 피싱'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7일 스마트폰 채팅앱과 몸캠피싱용 채팅앱으로 확보한 피해자 알몸 영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금품을 요구한 남성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11월 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는 인물과 알몸 화상 채팅을 하다 자신의 알몸 사진·동영상상을 확보했으니 현금 3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신고를 토대로 돈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장소에 나온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나도 돈을 받아오면 자신의 알몸 사진을 퍼뜨리지 않겠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다른 몸캠 피싱 조직의 주범을 추적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음주측정 거부했다 벌금 700만원

○·임에서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의 음주측정 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30대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려 7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처지.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0일 밤 광주시 북구 참판로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세 차례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차량을 처분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차량 화재 전소 허위사실 유포 운전자 서비스센터 이미지·신용도 실추 책임”

### 항소심도 회사측 손 들어줘

방송 등을 통해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차량 운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출고 시켰다'고 허위로 인터뷰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서비스센터 신용도·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입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3부(부장판사 정혜원·조현호·황영희)는 A씨가 S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동차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출고를 시켰던 점이 화가 나요'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도 다른 언론에 인용 보도됐다.

해당서비스센터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1심 법원은 이와관련, "A씨 행위는 해당 수입차 회사가 차량에 대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이라며 "해당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또는 훼손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회사측 직원들이 사건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출고를 시켰다고 말하는 등 출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 방송을 접한 일반인에게 해당 서비스센터의 정비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1심 법원 판단이었다.



발열체크하고 꽃 구경 7일 벚꽃 명소인 화순군 세량지 입구에서 한 관광객이 발열체조를 하고 있는 동료들과 2m거리를 두고 선 채, 차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하고 PC방서 태연히 게임한 아들

### 수차례 조현병 치료 경력 광주광산경찰 긴급체포 조사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PC방에서 태연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산경찰은 7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42)씨를 긴급체포

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께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친아버지(74)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았다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동생의 신고로 출동,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PC방으로 옮겨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8시간 가량 게임을 하고 있었

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